

실직자 가족돕기

성각스님 선서화전

■ 23일까지 운현궁 미술관 ■

‘무’ 법(無法)을 법문(法門)으로 하고 무문(無門)을 법문(法門)으로 하는 선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선문화는 공(空)과 무(無)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선문화란 지식적 이론이나 관념적인 접근, 명예욕, 성취욕으로 하는 예술이 아니라 꾸밈이 없이 일체의 형식을 초탈한 무심 무작의 경지에서 직관의 지혜가 작용하여 시각화하고 조형화된 예술이다.

선문화를 대표하는 선서화의 특징은 무심, 탈속, 고요함(寂靜), 파격 등이며 일체의 사랑분별이 떨어진 본래심의 세계를 무심필(無心筆)로 표현했기에 작가의 정신과 사상이 혼연일체가 되어 녹아있다. 이러한 직경과 무사의 경지에서 전개된 선서화는 보는 이를 초차도 간결한 아름다움과 심오한 진리, 그리고 청정탈속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선가에서는 자성진심을 밝히는 구도의 방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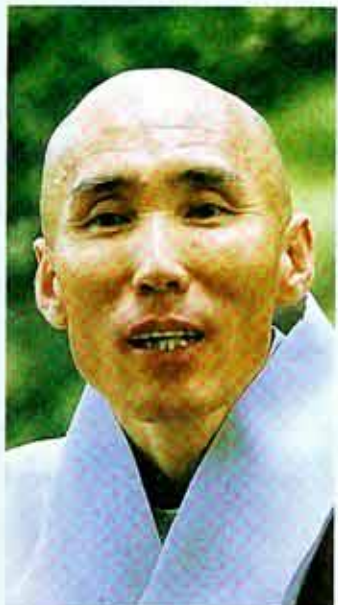
◇망운진어일색(望雲眞如一色).

구도정신이 피워낸 청정한 예술세계

로 선사들이 깨달은 심오한 도의 경계를 계승이나 글씨, 그림으로 담아내는 일이 있다. 수행자 본래의 순수한 성품 추구를 위한 구도의 자세로 부처의 선수행을 동반한 가운데 무념무욕의 상태에서 나온 선서화는 선사들의 깊은 선기(禪機)가 담겨있기에 그림속에 구현된 선의 정신이 그 어떤 법문이나 선구(禪句)보다 교화를 직접적으로 또 널리 펼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있다.

성 각스님의 선서화 역시 수행과 교화의 방편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연꽃이다. 스님은 남해 망운산 망운암에서 고독한 구도자로서 치절한 수행을 하는 중에 늘상 대하는 수행의 도반들인 산 물 나무 해 달 새 등을 소재로 하여 꾸밈없고 순수한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성각스님은 자연이아말로 현대사회의 삭막해져가는 인간사회를 떠스하고 깨끗한 본래심으로 돌아가도록 해준다고 믿고 있어 자연을 즐겨 그림의 소재로 삼고 있다.

성각스님 인터뷰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이 둘이 아닙니다. 요즘 경쟁난으로 인해 실직 가정이 늘어나고 날로 사회분위기가 황폐해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은 그동안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이라고 생각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전체의 화두가 되어 있는 실직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운현궁미

소시했으면 한다는 마음도 내 비친다. 학창시절부터 미술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고 출가전에는 만화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다는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남해 망운암에서 덕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한국현대미술협회 이사 겸 한중서화교류촉진회 이사를 지내고 통일문화예술상, 한국미술대전 국제공모전 대상, 대한민국한양종합미술대전 대상 수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스님은 중국예술인과의 교류도 활발히 가져 중국 연변박물관과 길림성

“실의에 빠진 사람들 희망 가졌으면...”

술관에서 ‘실업자가족돕기 성각스님 선서화 특별초대전’을 갖고 있는 성각스님(남해 망운암 주지)은 이미 부산에서 세차례나 불우 청소년 가장 돕기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열어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청소년들에게 새 희망을 준 바 있다.

서울방송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도 실직가정 돕기 기금마련 뿐 아니라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선서화들을 관람함으로써 해서 우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되고 사회의 침체된분위기도 다소나마 일

역사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으며 현재 중국서화연구소 대학 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문화학과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며 이제껏 하루라도 붓을 놓아본 일이 없을 정도로 화업(畫業)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오고 있다.

어떠한 주제로 무슨 그림을 그리더라도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한다는 성각스님은 오는 9월 부산에서 또 한 차례의 실직자돕기 선서화초대전을 계획하고 있다.



산·물·해·달 등 꾸밈없고 순수한 소재

스쳐가는 마음 독특하게 형상화

무념무욕 무심필에 보는 이도 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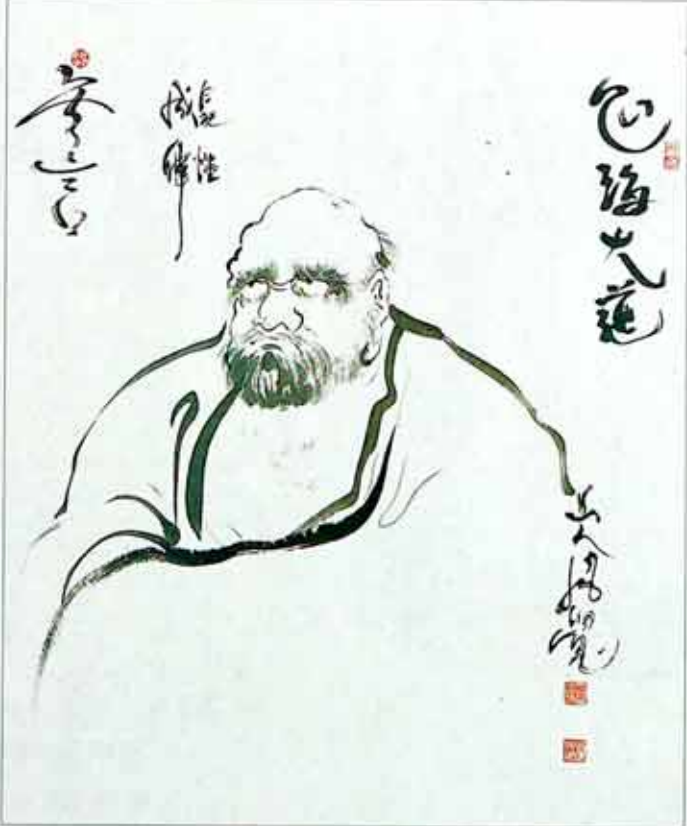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서도 선종의 초조 달마와 자비의 대성모 관세음보살을 그린 관음도, 천년 침묵을 간직한 채 깊은 법계를 상징하는 산, 산과 해, 산과 계곡, 산과 나무 그리고 바위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 천진동자들과 복(福)의 상징 돼지가 정답게 어울리는 그림 등 50여점의 그림과 글씨를 선보이고 있다.

굵은 붓으로 쓴 ‘山’은 산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운필이 시원스럽고 글씨를 조형화시켜 간단한 그림을 함께 조화시킨 이색 선화도 보여주고 있다. 또 선화의 대표격인 달마의 표정이 파격적이다. 두 눈을 부릅 뜬 달마, 파란대소하는 달마, 눈을 치뜨고 있는 달마, 면벽하고 있는 달마 등 각기 다른 달마가 이심전심으로 네 본성을 찾으려고 일갈한다.

성각스님은 문득 스쳐가는 마음을 포착해 형상화한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서화에 관심을 갖고 감상한다면 저절로 마음을 닦는 일에 동참이 될것이라고 말한다.

종은시고수(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장)는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작품세계는 그 표현법이 직재적(直截的)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직접적 탐색법으로서 강이면 강, 물이면 물이라는 직접적이고 수식과 장식을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성각스님은 전통 선화의 기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닦은 수행의 경지를 독특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더욱 파격적이고 개성적인 표현법을 쓰고 있다”면서 스님의 이번 전시회가 경쟁난으로 침체돼 있는 불교미술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숙 기자(gsllee@buddhopia.com)



◇심해대도(心海大道)

